

활력있고
快適한
漁港漁村
建設

會訓
● ● ●
創奉誠
意仕實

漁港消息

발행경 편집인 인쇄인
孫井植 孫井植 金在克
韓國漁港協會 法人 韓國漁港協會
서울특별시종로구원남동103번지
TEL. 3673-2851~4
568-6651~2
ISSN 1227-7053
등록일: 1988년 2월 19일 FAX. 568-6653
www.fipa.or.kr

(月刊) 第148號

THE FISHING PORT NEWS

2000年 4月 25日(火曜日) (1)

2000년도 어항건설공사 일정 앞당겨 건설경기 활성화와 고용증대에 기여

4월 25일 현재 총 57건 중 25건 발주

해양수산부는 국내건설경기의 활성화와 고용증대를 위하여 2000년도 주요 어항건설사업 총 57건(계속투자 25건, 유지보강 32건) 공사 1,411억원 중 52%에 해당되는 20건 공사, 727억원을 지난 1/4분기에 조기발주 완료

하였고, 4월 25일까지는 울도항과 풍납항이 착공됨에 따라 모두 25건(계속투자 18건, 유지보강 7건)이 추진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양수산부가 집계한 어항시설사업 추진현황에 따르면 지난 2월 전남 보육항 착공

에 이어 마량·남도항, 3월 이후에는 광암·국동·구산·오산·소흑산도·수산·감포·독암·모항·현포·임원·어청도·월평·구조라·안목·죽변·대변·울도·풍납·시산·여서·서망항 등이 발주되었다.

대 및 어장조성 등 기반조성

기초기술을 개발하는데 주력하였고, 올해에는 그 동안 방류한 조피볼락, 전복 등을 대상으로 이들 어류의 군집행동, 수중음향 연구, 종묘의 음향순치 연구 등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적정수중구조물의 배치, 우량어종의 생산 등 기반조성 연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올해 주요사업내용은 볼락전복 등 110만마리의 종묘방류와 인공어초 400개, 인공

해조장을 3개소에 시설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2001년에는 전남 다도해형 및 제주도 목장형을, 2002년에는 서해안 갯벌형, 동해안 관광형 등 4개 해역을 추가하여 동·서·남해 표본해역 5개소에 대하여 2007년까지 총사업비 1,076억원을 투입하여 중점 개발한 후 전국연안으로 동 사업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2000년 어항공사 추진현황

(단위 : 천원)

지방청	항명	도금액 (관급제외)	계약일	착공일	물량	시공회사
부산	대변	4,300,000	3.28	4.3	동방파제 하부45.7m, 호안 하부27m 물양장 하부113.6m	정남개발(주)
	소계	4,300,000				
인천	울도	1,962,000	4.10	4.11	방파제상부 112m, 하부 57m, 상치콘크리트 120m 여객부두축조 1식	송우건설(주)
	소계	1,962,000				
여수	남도	2,617,000	2.25	2.29	방파제 상치74m, 상부40m, 하부71m, 하부부	(주)대아건설
	국동	1,999,800	3.3	3.4	물양장 상부18m, 하부231m, 호안 상부120m	남화토건(주)
	풍납	2,956,900	4.11	4.15	서방파제상부 38m, 도제하부221m	건화건설(주)
	시산	2,594,700	4.22	4.27	선양장상부 30m, 물양장상부 164m, 호안축조 25m 도로1식, 파제축조 140m, 등대기, 준설 33,096m³	금광기업(주)
	소계	10,168,400				
마산	구조라	1,648,300	3.16	3.21	남방파제 상부76m, 상치보강 1식 유람선부두 하부73m	우림종합건설(주)
	관암	861,000	2.28	3.3	물양장 하부130m	정남개발(주)
	소계	2,509,300				
동해	수산	3,587,000	3.4	3.10	북방파제(인제) 축조 70m, 남방파제 축조 60m	(주)삼양사
	안목	3,580,000	3.20	3.21	북방파제 축조72m	신우건설(주)
	임원	2,318,000	3.11	3.15	동방파제 축조58m	대동종합건설(주)
	소계	9,485,000				
군산	어청도	4,666,000	3.10	3.15	동방파제 하부82m, 상치106m	조흥공업(주)
	소계	4,666,000				
목포	소흑산도	5,277,800	3.6	3.6	파제 상부 1식, 소파호안 축조20m	삼부토건(주)
	보옥	3,116,960	2.18	2.18	남방파제 상부49m, 상치 1식	남광건설(주)
	독암	3,671,000	3.9	3.14	동방파제 축조30m, 하부25m, 하부부 1식	금광기업(주)
	마량(인공)	114,000	2.25	2.29	물양장 보강1식, 배수로설치 327m	금광기업(주)
	원평	147,769	3.13	3.16	호안도로 복구340m, 신설 120m	남호종합건설(주)
	여서(차)	2,449,000	4.11	4.18	서방파제축조 43m, 두부1식	금광기업(주)
	서망	187,000	4.24	4.24	호안배후도로 300m	광남개발(주)
	소계	14,776,529				
포항	현포	4,525,000	3.6	3.15	동방파제 축조32m, 하부16m	동화건설(주)
	오산	3,020,000	3.2	3.6	북방파제 축조63m, 방사제 축조175m	태림종합건설(주)
	구산(차)	2,070,000	2.28	3.4	북방파제 축조 74m, 물양장 하부50m	화산건설(주)
	감포	3,130,000	3.7	3.10	도제 상부52m, 하부36m, 하부부 1식, 등대 1식	갑을건설(주)
	죽변	1,194,000	3.28	4.1	인제 축조34m	서안건설(주)
	소계	13,939,000				
대산	모항	3,729,000	3.10	3.14	방파제 축조60.5m, 물양장 하부87m 호안 상부335m, 선양장 축조30m	성우건설(주)
	소계	3,729,000				

바다목장화 사업 확대추진

2007년까지 총사업비 1,076억원을 투입

해양수산부는 한·일어업협정 체결 및 연안국들의 EEZ 확장에 따른 어장축소 등 열악한 생산기반 여건을 극복하기 위하여 1998년부터 경남 통영해역을 대상으로 추진해온 환경친화적인 어업방식인 바다목장 기술개발을

위해 한국해양연구소, 수산진흥원 등과 공동으로 바다목장 기반연구 및 현장적용실용화 연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바다목장화 사업은 기존 수산물의 생산, 제어등에 해양생물·환경·공학기술을 접목시켜 인공어초 부소파제 음향급이기

해조장 등을 개발·설치하고, 지속 가능한 생산력 유지를 위하여 자원량 파악 및 방류, 관리기술의 개발을 통해 수산자원을 지속적인 생산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어업인들의 소득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98년부터 '99년까지의 조사연구는 환경관리, 자원증

열전의 막은 내렸다. 여당도 야당도 모두 과반수 의석 확보에 실패한 채 4.13총선은 그렇게 끝이 났다.

결과론이긴 하지만 우리 국민들의 선택은 절묘했다. 어느 당에도 세를 몰아 주지 않고 편을 갈라 놓는 것은 국민화합과 협력이 절대로 필요한 상생의 정치를 하라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또한 제16대 국회의 과제도 결정됐다. 많은 공을 들였음에도, 또한 그렇게 목청껏 외쳤음에도 오히려 더욱 심화된 지역주의를 이제는 국민이 화합과 단결로 극복하지 않으면 안될 상황에 놓였기 때문이다.

즉, 다시 말해 이번 제16대 국회에 젊은 신진 인사들이 대거 진출한 것을 21세기 신세대에 걸맞은 세대감각과 세대의무를 결합한 집단이 세력화 될 수 있는 모양을 만들었다는 의미를 지닌다는 뜻이다.

이제 우리 어항업계도 되 돌아 봐보자. 그동안 너무도 두터운 기성 정치의 벽은 협회가 아무리 새로운 아이디어와 정책을 호소해도 별다른 움직임이 없었다. 과거에 그렇게 해왔으니 앞으로도 그렇게 해야 마땅하지 않겠느냐는 일종의 전례답습형 정치 때문이었다.

한마디로 변화를 두려워하고, 도전하기를 꺼리고, 모험을 겁내는 그런 분위기가 곧 우리 정치의 현실이었다면 너무 지나친 말이 될까.

그러나 그 변화를 이번엔 거꾸로 국민들이 창출해냈다. 우리 정치 사상 이렇게 많은 신진 인사들이 대거 국회의사당에 진출하기는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이다.

이를 역설적으로 설명하자면 그만큼 제16대 국회에 거는 국민들의 기대와 수산인들의 기대가 그 어느 때보다 지대하다는 의미이다.

세상이 「빛의 속도」에서 「생각의 속도」로 변하는데 유독 그 변화의 흐름이 어찌면 가

장 느린 곳이 그간의 국회였는지도 모른다. 그런데 이제 그 두꺼운 벽을 훌훌 털고 새로운 「세상 밖으로」 우리 국회가 나오게 되었으니 우리 어항인의 기대가 어찌 이보다 더 클 수 있겠나.

미래의 식량산업은 결국 바다에서 해결해야 하며, 해결할 수밖에 없다. 이것은 당위이다. 그럼에도 그 바다에 대한 이해와 지식의 부족으로 그 당위성이 늘상 토론의 중심에서 한 걸음 물러나 있었던 것이 그동안의 현실이었다.

이제 중요한 사실들은 모두 원점으로 회귀시켜야 한다. 어항어촌을 발전시키는 일이 결국 미래의 식량산업을 바다에서 해결할 수 있는 지름길이라는 지극히 원론적인 사실을 이번 제16대 국회에서는 새삼 확인시켜 주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이 뿐만이 아니다. 해마다 예산철이 되면 여기 쪼끔, 저기 쪼끔, 이런 식으로 생색내기 예산 배정을 함으로써 자리 보전이나 하려는 그러한 자세로는 21세기 새로운 기류를 이겨내기 힘들다. 변화의 세대에 걸맞게 변화된 모습을 이번 국회에 기대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적잖은 숫자의 구정치인 퇴출을 우리 모든 산업에 신기원을 이루려는 온 국민의 열망인데 하물며 사양산업이니, 생색 안나는 사업이니 하면서 그동안 온갖 실용을 받아들인 어항인들이 바라는 열망은 어떠한지 굳이 설명이 필요 없을 듯하다.

뚜껑은 열려야 알겠지만 어항산업에 대한 보다 현실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 그리고 지원을 제16대 국회에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그리고 이런 문제에 관한 한 여당이고 야당이고 관계 없이 상생의 정치에 걸맞게 함께 한 목소리로 변화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주기를 바란다.

어쩌면 이번이 우리나라 수산업이 나아가야 할 마지막 기회인지도 모른다. 이미 선진 수산국은 어항어촌을 발전시켜 저만큼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제16대 국회에 등원할 모든 당선자들에게 축하의 인사를 보내며 변화를 갈구하는 어항인들의 기대를 함께 전해 본다.



동

정

ESCAP 인프라 각료회담 한국유치 협의



李恒圭 해양수산부장관

▲이항규 해양수산부 장관은 4월19일 국제연합 아·태경제사회이사회(ESCAP) 사무차장의 예방을 받고 아시아·태평양 역내 해운항만 협력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 특히 내년도 ESCAP 역내 50여 개 회원국 관계 장관이 참석 개최될 예정인 인프라 각료 회담의 한국 유치에 대해서도 협의.

▲손정식 한국어합협회장은 4월17일 밝은사회클럽 행사에 참석, 19일에는 협회 회의실에서 제25차 이사회를 개최, 21일에는 해양전략연구소 세미나에 참석, 25일에는 섬유센터에 열린 현우회 세미나 참석.

▲박종식 수협중앙회장은 4월3일부터 8일까지 2000년도 지회별 업무보고와 관내 회원조합장들의 애로사항 청취를 위해 지회를 순시, 19일에는 이사회를 개최.

▲최상욱 남화토건주식회사 회장은 4월4일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남도회 총회 및 우수장학생 장학금 수여식에 참석, 7일에는 한국4H후원회 후원사업 활성화 방안 협의회의에 참석, 11일에는 법무부 범죄예방위원 갯생보호여성분과 제13회 정기총회에 참석, 14일에는 제21차 유네스코 아태지역 순회사진전 개최식에 참석, 19일에는 광주공원에서 열린 제40주년 4.19 기념행사에 참석, 20일에는 제20회 장애인의날 기념식 및 제8회 전남 장애인 체육대회에 참석.

▲고재철 금광기업주식회사 회장 4월8일 광주문예회관에

서 열린 조달청 명품전에 참석, 14일에는 산업경제인협의회회의에 참석, 17일에는 광주 염주체육관에서 열린 송원배 배구대회 개막식을 개최, 21일에는 임방울재단 이사회를 주재.

▲마형렬 남양건설주식회사 회장은 4월8일 건설공제조합 운영위원회에 참석, 18일에는 대한건설협회 이사회에 참석, 24일에는 치안자문회의 월례회의에 참석, 26일에는 전남건설협회 권역별회의회를 개최.

▲조남욱 삼부토건주식회사 회장은 4월3일 중국 산업시찰단 초청오찬에 참석, 6일

회사 회장은 4월13일 제16대 총선 북제주지역(새천년민주당)에서 당선됐다.

▲황금주 동광건설주식회사 회장은 4월18일 흑산도 공사현장에 출장, 26일에는 평택 도로공사 현장에 출장.

▲정운삼 대지종합건설주식회사 회장은 4월12일 해남공사현장에 출장, 17일에는 진도 공사현장에 출장.

인사

▲해양수산부 □과장급 전보 △항만국 항만정책과장 이상문 △항만국 항만건설과장 이진호 △항만국 민자계획과

△해양수산부 근무 조종환(이상 4월6일) □서기관 승진 △감사관실 감사담당관실 시설서기관 권정기 △항만국 항만건설과 시설서기관 오봉진(이상 4월11일) □서기관·사무관급 인사 △군산지방 해양수산청 항만공사과장 시설서기관 이병길 △해양수산부 시설서기관 오봉진 △공보관실 행정사무관 이종석 △항만국 항만건설과 토목사무관 최명용 △항만국 민자계획과 토목사무관 나웅진 △부산지방해양수산청 행정사무관 김혜정 △부산지방해양수산청 토목사무관 모배근 △인천지방해양수산청 행정사무관 권순욱 △여수지방해양수산청 어항공사과장 토목사무관 신순균 △마산지방해양수산청 토목사무관 변청수 △마산지방해양수산청 토목사무관 조영원 △포항지방해양수산청 항만공사과장 토목

손재학 △어업자원국 양식개발과장 이용수 △어업자원국 원양어업과장 성기만 △국립수산진흥원 연수부 교학과장 정도훈 △국립수산진흥원 남해수산연구소 기획과장 이진주 △해양수산부 근무 김덕일(이상 4월21일) △해운물류국 항만운영개선과장 심동현(이상 5월1일)

▲수협중앙회 □상무 승진 △양성일 서정욱 이우섭 신숙문(이상 3월28일)

- 개인
- ▲고덕봉씨(전 한국어합협회 전무이사)
 - ▲기호준씨(전 국립수산진흥원 서해수산연구소 기획과장)
 - ▲김규한씨(관동대학교 교수)
 - ▲김기욱씨(전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어항공사과장)
 - ▲김동원씨(주식회사동아상호신용금고 회장)
 - ▲김용덕씨(마산지방해양수산청)
 - ▲김익수씨(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 ▲민병훈씨(국립수산진흥원 서해수산연구소 기획과장)
 - ▲박덕만씨(어업지도선관리사무소 무궁화9호선장)
 - ▲박호성씨(진도군청 수산과)
 - ▲송중석씨(금광기업주식회사 사장)
 - ▲송형준씨(금호건설주식회사 자문위원)
 - ▲안익성씨(주식회사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 이사)
 - ▲이승현씨(남양건설주식회사 사장)
 - ▲이신복씨(대한어망공업협회 전무이사)

외비남부

<대단히 감사합니다>

- 단체
- ▲남화토건주식회사(회장 최상욱)
 - ▲동화건설주식회사(사장 김중배)
 - ▲조흥공업주식회사(사장 박규인)
 - ▲주식회사새건설(회장 조홍제)
 - ▲신우건설주식회사(사장 김철화)
 - ▲대형기선저인망수산업협동조합(조합장 이수인)
 - ▲인천수산업협동조합(조합장 차석교)



■ 손정식 한국어합협회장은 4월19일 협회회의실에서 이사회를 개최하고 현안사항을 협의했다.



■ 손정식 한국어합협회장은 4월19일 일본 수산타임즈사 오오조라 기자의 예방을 받고 관심사항에 대해서 현담했다.

에는 중소기업회관에서 열린 산업자원부장관 초청간담회에 참석, 10일에는 한·일 친선협회중앙회가 주관한 일본 대사 초청만찬에 참석, 이어 서울대학교 총동창회 회장단 회의에 참석, 18일에는 한국 자유총연맹 회의에 참석, 20일에는 전경연 회장단회의에 참석.

▲장정연 정한종합건설주식

장 박정천 △항만국 기술안전과장 송만순 △수산정책국 어촌어항과장 이용기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수산관리과장 이만영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 계획조사과장 연영진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 시설과장 심영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인천항건설사무소 계획조사과장 강범구

사무관 백상목 △바다의 날 행사추진기획단 행정사무관 민혜영 노진학(이상 4월17일) □과장급 전보 △해양정책국 해양보전과장 김영규 △해운물류국 해운정책과장 민경태 △해운물류국 선원노동과장 방기혁 △수산정책국 수산정책과장 정순석 △어업자원국 어업정책과장 심호진 △어업자원국 자원관리과장

- ▲군산시수산업협동조합(조합장 임성식)
- ▲장흥군수산업협동조합(조합장 김대중)
- ▲부산시수산업협동조합(조합장 임상봉)
- ▲마산시수산업협동조합(조합장 임채열)
- ▲원양어업개발주식회사(사장 김응수)

- ▲이종만씨(주식회사새건설 대표이사)
- ▲전병하씨(전 수산청 서기관)
- ▲정대연씨(주식회사대영엔지니어링 전무이사)
- ▲정해용씨(주식회사대영엔지니어링 상무이사)
- ▲조사연씨(조흥공업주식회사 부사장)

지역제한입찰 지방청서 집행 50억 미만공사 적격심사도

앞으로 공공시설공사 중 지역제한 대상공사에 대해서는 각 지방조달청에서 계약 요청서를 접수해 직접 공고를 내게 된다.

또 3천만원 미만 소액공사의 경우 수의계약 여부의 판단을 지방청에서 맡게 되는 등 본청의 시설공사 계약관련 업무가 대폭 지방청으로 위임된다.

최근 조달청은 지방청의 역할이 단순 반복작업에 그쳐 지역 고객과의 연결고리가 미약, 현장감 있는 고객 위주의 업무처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시설공

사 계약관련 업무를 이차로 대폭 지방청에 위임해 4월1일 이후 계약요청 접수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달청이 확정된 지방청 위임대상업무를 보면 우선 지금까지는 모든 공사의 계약요청 접수업무를 본청에서 맡아왔으나 앞으로는 전국 어느 지청에서나 가능하도록 문호를 개방했다.

특히 지역제한 입찰공사에 대한 계약방법 결정 및 입찰 공고 업무를 지금까지는 본청 및 서울청에서만 수행해 왔으나 앞으로는 수요기관이 위치한 해당지역 지방청에

말도록하고 서울청의 경우 30억원 이상 전문·전기·정보통신분야 공사까지 직접 공고서를 작성하되 모든 공사에 대한 기술검토만큼은 당분간 본청에서 수행(서울청 제외)하도록 했다.

다만 현재 모든 공사를 본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적격심사업무는 50억원 미만공사의 경우 지방청에서 심사하되 그 이상 공사에 대해서는 추후 확대여부를 재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조달청은 또 3천만원 미만 소액공사의 수의계약에 대해서는 본청 뿐만 아니라 서울청에서도 집행이 가능하도록 하고 나머지 지방청에 대한 확대실시 여부는 추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어항청소선 소식

5월중 어항청소 계획				어항청소선 이용안내	
선명	월	일	지역(항)	선장	연락처
어항 901호	5. 8 - 13	5. 22 - 27	흥원대천	최동립	(휴대폰) 011-247-5592 E-mail : 901@fipa.or.kr
어항 902호	5. 8 - 12	5. 16 - 22	목포연안안마계마	김성용	(휴대폰) 011-243-5590 E-mail : 902@fipa.or.kr
어항 903호	5. 8 - 13	5. 22 - 27	나로도소안	조동식	(휴대폰) 011-230-5591 E-mail : 903@fipa.or.kr
어항 904호	5. 1 - 25		남해	박만성	(휴대폰) 011-232-5596 E-mail : 904@fipa.or.kr
어항 905호	5. 15 - 18	5. 29 - 31	육지외포	하용만	(휴대폰) 011-247-5593 E-mail : 905@fipa.or.kr
어항 906호	5. 8 - 12	5. 22 - 27	포항연안죽변	김성훈	(휴대폰) 011-247-5594 E-mail : 906@fipa.or.kr
어항 907호	5. 2 - 6	5. 15 - 20	목호대진, 대포	최일선	(휴대폰) 011-243-5597 E-mail : 907@fipa.or.kr

바다환경보호 캠페인 죽어가는 바다환경 깨끗한 우리바다 어업터전 무너진다 풍요로운 우리마음

풍요롭고 쾌적한 거점어촌 건설

15개소 선정 1,360억원 투입

해양수산부는 동·서·남해안과 제주도에 해역별 특성을 감안한 거점어촌 15개소를 선정 1,360억원을 투입하여 풍요롭고 쾌적한 환경의 어촌마을을 조성키로 했다.

이와같은 거점어촌개발사업은 지난 '94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전국 1,200여개 어촌계를 대상으로한 어촌의 생산기반시설 확충사업의 하나인 어촌종합개발사업과 병행하여 실시키로 했다. 어촌개발사업은 어선계류시설, 해안도로, 어촌환경개선 등

낙후된 어촌의 기반을 확충하여 어가소득을 높이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해양수산부는 현재 어촌의 숙원사업 위주로 실시되고 있는 어촌종합개발사업은 기반시설지원 위주의 어촌정비사업으로 전환하여 추진하고, 거점어촌개발사업은 해역별로 도시근교형, 연안촌락형, 낙도벽지형 등 어촌입지적 특성을 고려한 거점어촌을 선정하여 1개소당 100억원 규모로 투자하여 어

선계류장 등 어업기반시설과 기능시설을 완비하고 수산업·어촌정보화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중점을 두기로 했다.

또한 수산시설외에 공공시설을 포함한 유아원, 체육시설 등 생활편의시설을 연계·확충하여 어촌의 중심마을로 육성시켜 생활환경과 소득이 조화된 활력있는 미래지향적 어촌마을로 조성하고 자연과 문명이 조화된 어촌지역사회로 개발함으로써 돌아오는 어촌구조를 실현키로 했다.

최근 해양수산부가 '98년 이후 어촌정책자금을 지원받은 21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175명이 계속 어업에 종사하겠다고 응답했다. 이와함께 귀어가 중 87.3%가 30~40대의 청장년층으로서 부족한 어촌 후계인력을 충원한 것으로 분석됐다.

귀어 후의 주 어업은 유자망 연승 통발 등 어선어업이 58.3%를 차지했고, 김 미역 전복 등 양식어업이 37.1%, 내수면 및 수산가공이 2.3%로 집계됐다. 또 이들의 귀어비용은 평균 4,500만원이었으며 어촌정책자금은 어선 건조 및 구입에 48%, 양식 자재 및 종묘구입에 26%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97년 이후 경제난으로 귀향한 실직자들의 어촌정착을 돕기 위하여 '98년부터 귀어가에

해양수산부 1사1연안 가꾸기운동 추진

연안바다를 자기 앞플 정원처럼 가꾸는 '1사1연안 가꾸기 운동'이 대대적으로 전개된다.

1사1연안 가꾸기 운동은 바다를 이용하는 어촌계, 수협, 해운업체 등 업·단체, 유관행정기관·단체들을 중심으로 자율적으로 연고가 있는 일정구역의 연안을 지정하여 스스로 청소하고 오염행위를 감시하는 운동이다.

해양수산부는 4월부터 시·군 및 지방해양수산청을 통하여 1사1연안 가꾸기 운동에 참여할 업·단체, 기관을 신청받아 전국적인 체계를 구축하며 1사1연안 가꾸기 운동이 민간단체 중심으

로 운영·정착되도록 녹색연합 등 환경운동단체의 활동과 연계하여 범국민운동으로 확산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올해 100억원의 예산을 투입, 바다밑 침적폐기물을 수거·처리하고, 오염물질의 퇴적이 심각한 주문진항 등 4개지역에 157억원 을 투입하여 집중 준설할 계획이며 부유폐기물 수거·처리사업(43억원), 해안가 정화사업(27억원), 해양폐기물 종합처리시스템 개발(15억원) 등 해양폐기물 관리를 위하여 총 342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전국 연안이 깨끗하고 아름답게

하반기부터 연안정비사업 본격시행

해양수산부는 '연안정비계획'을 수립, 올해부터 오는 2009년까지 10년 동안 바다정화와 시설물 보수 및 연안을 친수공간으로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태풍·폭풍·해일 등 빈번한 자연재해로 연안시설물의 파괴 유실, 재산과 인명피해 그리고 간척·매립으로 인한 모래사장 유실, 연안서식처 파괴, 해역수질오염 등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나라 전 해안선(도서포함 11,542km)을 대상으로 올 상반기 중에 연안정

비계획을 확정·고시하고,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인 연안정비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21세기 해양의 시대를 맞이하여 연안을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친수공간 조성에 대한 수요가 증대되고 있는 실정을 감안, 해변공원 해양생태공원과 같은 친수연안공간 조성을 그 대상사업으로 하고 있다.

이에따라 올해에는 100억원의 예산으로 연안을 안전하고 깨끗하며 친근한 곳으로 가꾸기 위한 연안정비사업 추진할 예정이다.

토록 함은 물론, 어촌관광·시범어장 및 특산물 소개를 통하여 전자상거래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할 계획이다.

또한 어촌 디지털화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2~3개의 수산관련 전문 S/W를 개발·보급하고 어업인 후계자를 중심으로 정보교육을 실시, 어촌 디지털화를 주도하는 정보화된 정어업인력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이러한 어촌의 디지털화가 차질없이 완료되면 어업생산기반의 디지털화가 이루어져 이를 토대로 전분야의 디지털화가 촉진됨으로써 우리 수산업의 고부가가치산업화가 달성되고 경쟁력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어촌정착지원사업 성공적 추진

해양수산부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지난 '97년 이후 어촌에 정착한 가구 82.2%가 계속 어업에 종사할 뜻을 밝힘으로써 정부의 귀어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도 우수건설업자 지정

해양수산부 향후 1년간 우대

해양수산부는 1999년도 항만건설 및 어항건설공사에 대한 시공평가를 실시하고 이중 우수하게 공사를 시공한 쌍용건설주식회사(대표 장동립)와 동아건설산업주식회사(대표 이창복)를 2000년도 해양수산부 항만 및 어항건설공사 우수건설업자로 선정했다.

우수건설업자 지정은 건설기술관리법 규정에 의거, '99년도 시행 총공사비 50억원 이상인 공사에 대하여 품질 등 공사시공 전반에 걸친 시공평가를 실시하여 '99년도 준공한 공사의 시공업체 10%범위 내에서 선정하게 되는데 지정된 우수시공건설업자는 건설기술관리법 등 관계법규에 의하여 향후 1년간 입찰 PQ심사시 가산점 등 우대를 받게 된다.

우수건설업자의 선정은

1999년도에 해양수산부 산하 기관에서 발주, 시행한 총공사비 50억원 이상인 36개 공사에 대하여 동·서해안, 권역별 2개조로 평가반을 구성하여 약 1개월간에 걸쳐 현

장조사 및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특히 금년에는 평가선정의 투명성 및 객관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각 시공평가반에 해양수산부 설계자문위원 중에서 외부전문가(각반 1명)를 위촉하여 공정하고 엄격하게 평가한 결과 쌍용건설 등 2개 업체를 최종 선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바다 퇴적물 준설사업 속초 등 4개해역 대상

속초 청초호를 비롯한 4개 해역에 퇴적물 준설사업이 펼쳐진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항만오염을 방지키 위해 157억원의 예산을 투입, 속초 청초호를 비롯 주문진항 등 4개 오염해역에 퇴적물 준설사업을 시행키로 했다.

사업대상지역은 속초 청초호(12만7천㎡)와 주문진항(5만1천㎡), 포함내항(18만2천㎡), 여수 선소해역 등이며

기본 및 실시설계가 완료되는데로 대대적인 준설사업에 착수키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특히 이들 4개 오염해역의 경우 항만수질을 유지키 위한 기존의 준설사업과는 달리 자연의 정화능력으로 회복이 불가능한 오염해역의 썩은 퇴적물을 송두리째 제거, 추가적인 오염원의 유입을 근원적으로 차단키로 했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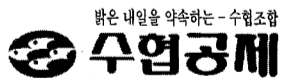
어촌의 디지털화로 수산업 경쟁력 향상

해양수산부는 어촌의 정보화를 위하여 국립수산물진흥원을 신기술보급 및 정보화 교육센터화 하고 전국 28개소의 '수산물관리소'를 권역별 교육센터화 하는 신지식어업인 지식 공유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이 시스템은 어업인에게 원격영상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원거리 교육참석에 따른 시간적·경제적 손실을 해소하고 어업인이 언제라도 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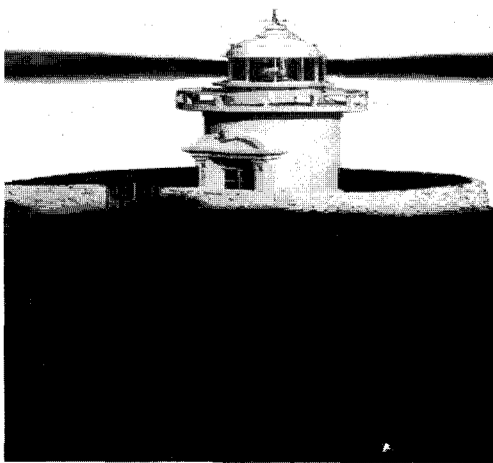
상을 통해 양식기술·적조·어병의 예방치료 등 원하는 기술과 정보를 쉽게 습득할 수 있고 전문가와 상담하여 어려움을 즉석에서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전국 1,700개의 어촌계에 컴퓨터를 연차적으로 공급, '수산정보사랑방'을 설치·운영하여 어업인들이 편리한 시간에 수산에 관한 각종 정보를 얻고 어업인들 상호간에도 정보교환이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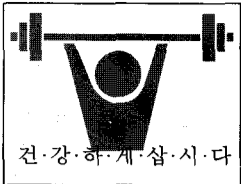


어려울 때, 가장 큰 빛을 밝혀드리겠습니다

안전한 보험, 든든한 보험 - 수협공제



수협의 안전지대로 들어오십시오. 가장 든든하게 지켜드리겠습니다.



위장약 상용하면 위암 발견 늦어질 수도

동양인은 원래 농경 민족으로 고기가 아니라 쌀이나 야채가 주식이었다. 그래서 서양인과 같은 지방이 많은 음식물을 섭취하는 민족과 차이가 있다.

소화에 위액을 그다지 필요로 하지 않는 체질이 되어 있다. 그러나 너무 소화가 잘 되는 것만 먹으면 위액이 남게 되어 위산 과다 증세를 보이게 된다. 동양 사람에게서 위산 과다 증세인 사람이 많다. 그래서 동양에서 위장약이라면 대개는 제산제이다.

요즘의 의학으로는 한 마디로 위장 질환이라 해도 병의 증상이나 그 사람의 위의 산도에 따라서 여러가지 형태의 약을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많은 것이 위산 분비를 억제하는 제산제로, 시판되고 있는 위장약의 대부분이 그렇다. 그들 제산제의 효능 중 하나는 산의 분비를 조금 억제시켜 주고 또 중화시켜서 마치 분비가 되지 않는 것같이 해주는 것이다.

즉 가슴앓이나 위의 통증을 약으로 인간의 두뇌에서 느끼지 않게 해주는 것이다. 위장약을 상용하지 않는 사람은 위의 통증을 느끼면 그 정도에 의해서 진찰을 받을 수가 있다. 그런데 상용자는 약으로 위의 통증 같은 것이 느껴지지 않게 되어 있으므로 웬만큼 통증이 심하지 않는 한 병원에 찾아가게 되지 않는다.

그래서 위궤양이나 위암의 발견이 늦어지는 경우가 발생

하는 것이다. 또 위장약을 상용하면 만성적으로 위산 중화 상태가 되어 버리기 때문에 위가 과보호 상태가 되어 버린다. 위는 들어온 음식물에 맞춰서 산의 분비량을 많고 적게 조절하는데, 위장약으로 본래의 역할을 하지 않아도 될 수 있게 해주면 위의 기능은 점점 더 약해지게 된다.

위나 십이지장은 굉장히 민감한 장기로 스트레스에 약하며 대수롭지 않은 일에도 컨디션이 나빠지는 것이다. 예를 들면 위장은 신호등 같은 것으로, 침이 황색이 되고 그리고 황색이 적색으로 변하고, 그런가 하면 적색이 다시 청색으로 바뀌기도 한다. 그런데 그렇게 늘상 바뀌기만 한다면 너무 바쁘고 번거로우니까 신호등 스위치를 꺼버리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물론 사고가 일어나고야 말 것이다.

마찬가지로 식욕이 없고 위의 상태도 별로 안 좋다는 것은 어제 너무 과식했다는 것을 신호로 알려 주는 것이다. 신호등으로 말하면 황색이 되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술을 안 먹으면 황색이 청색으로 바뀌는 것이다. 그러나 위장약이라도 먹으면 괜찮겠지 하고 또 마시거나 하면 황색의 경도가 무의미하게 되고 적색으로 바뀌어 위험신호를 보내게 된다. 위장약 뿐 아니라 약이라는 것은 진정으로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만 먹는다는 원칙을 잊어서는 안 된다.

(3) 규격관리

아스팔트매트의 규격관리는 부설위치, 연장 등의 관리를 한다. 일반 매트는 겹침폭을, 마찰층대용매트는 맞담줄눈(joint)부분에서 겹침과 철부가 생기지 않았는가를 각각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 합성수지계매트, 합성섬유매트, 범포에 대하여는 부설위치, 정장의 관리를 한다.

규격 관리기준을 표 3.6.7에 제시한다.

제 4 장 지반개량공

4.1 공법·공사의 개요

4.1.1 개 설

연약지반의 성질과 상태는 그 위에 건설되는 구조물 무게와의 대응에 따라 평가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는 흙의 강도가 작고 변형이 발생하기 쉬운 연약한 점성토나 공극이 많고 느슨한 상태로 퇴적한 밀도가 작은 사질토 등이 이에 해당한다.

구조물을 건설할 때 원지반상에 직접 구조물을 축조하면 안전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나 시공중 혹은 시공후에 예상되는 변형이 구조물의 기능상 허용할 수 없을 경우 그 지반은 연약지반이라 할 수 있으며, 그에 대응된 대책이 필요하다. 이와같은 경우 지반의 공학적 성질을 개선하여 그 안전성을 증대시키는 것을 지반개량이라 부른다. 대체로 지반개량에는 연약토 그 자체의 성질을 개량하는 일은 물론, 연약토를 치환하거나 보강하는 일도 포함하여 생각한다.

어·항·교·실

漁港工事施工管理의 첫걸음

(42)

第4章 地盤改良工

표 3.6.7 세굴방지매트 및 골동저항용 매트의 규격 관리기준

공 종	관리항목	측정 방법	측정 밀도	측정단위	결과의 정리방법	관리기준치
1) 아스팔트 매트	부설위치	스틸테이프 간승 등으로 측정	처음과 끝단, 변화하는 곳마다 및 20cm에 1곳이상	10cm	측정표 및 부설도를 작성하여 제출	
		겹침폭	스틸테이프 등으로 측정	1매에 2점	1cm	동 상
3) 합성수지계매트	연 장	스틸테이프 간승 등으로 측정	매트의 중심을 구간마다 및 전장	10cm	동 상	+ 규정하지않음 -10cm
		합성섬유매트를 적용한다.				
5) 활동저항용 매트	부설위치	스틸테이프 등으로 확인	처음과 끝단 및 변화하는 곳마다	10cm	측정표 및 부설도를 작성하여 제출	
a) 아스팔트 매트를 사용할 경우	부설위치	동 상	동 상	10cm	동 상	
c) 케이스 제작 시에 시공할 경우	부설위치	동 상	동 상	1cm	동 상	

지반개량은 토질안정과 동의어로 영어로는 모두 "soil stabilization"으로 표현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토질안정은 대상이 되는 지반의 깊이에 따라 천층토질안정과 심층토질안정으로 대별되고, 전자를 협의의 토질안정, 후자를 지반개량으로 구별한다. 이와 같이 지반개량과 토질안정의 구별은 명확하지는 않다.

본장에서는 아래에 제시하는 ①~③의 구체적방법을 지반개량공법이라 부른다.
① 연약한 지반재료를 개량하여 구조물에 적합한 지반조건을 영구적 또는 공사시공기간중 일시적으로 만든다.

② 연약한 지반재료를 제거하여 양질의 재료와 치환한다.

③ 흙에 없는 특성을 가진 재료(보강재료)를 연약지반속에 삽입하여 구조물에 적합한 지반조건을 만든다. 지반개량공은 그 공사를 하는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주목적으로 하는 공사의 시공환경을 창출하는 것이다. 즉, 방파제 본체를 건설하는 것이 주목적이고, 그 하중에 견딜수 있는 강도를 원지반에 확보하기 위하여 지반개량공을 시공하는 경우 등이다. 따라서 주목적으로 하는 공사를 안심하고 시공할 수 있도록 개량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6. 양 자

가. 양자를 입양할 수 있는 사람은

성년에 달한 사람은 남자나 여자나, 결혼을 했거나 하지 않았거나, 자식이 있거나 없거나 누구든지 양자를 입양할 수 있다.

나. 입양의 방법은 입양신고를 해야만 법적으로 입양의 효력이 있다. 입양신고서에 해당사항을 기재하고 당사자와 성년자인 증인 2명과 양자의 친부모가 서명 날인하여 양부모의 본적지나 주소지에 신고하면 된다.

다. 양자는 입양 후 성이 바뀌는가

바뀌지 않는다. 따라서 성이 다른 양자는 양부와 각각 성이 다르므로 친부모, 자식같은 감정이 생기기 어렵다. 양자는 양부모의 성을 따를 수 있도록 법을 고쳐야 한다. 단 입양 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여 사회사업기관을 통해 입양할 때는 양친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

라. 전 남편 자녀를 재혼한 남편 호적에 올릴 수 있는가 이혼하더라도 전 남편 자녀들의 호적을 옮겨올 수는 없고 다만 입양하면 호적에 올릴 수 있다.
마. 양자나 양부가 일방적으로 한 입양신고는 무효이다. 입양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은 후 1개월 이내에 신고하면 양자는

재산상속은 맏아들이나 시집간 딸이나 차별이 없이 똑같은 몫으로

가족법 해설 (3)

생가로 호적이 되돌아가게 된다.

바. 부부 중 일방이 데려온 양자는

부부는 공동으로 양자를 데려와야 한다. 한쪽이 모르게 데려온 양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입양취소청구를 할 수 있다. 또한 양자로 갈 때에도 서로 동의를 얻어야 한다.

사. 장남이 양자로 갈 수 있으나 호주의 장남이나 장손은 본가의 호주상속을 위해서만 양자로 갈 수 없었으나 이를 폐지하여 장남이나 장손도 누구에게나 양자로 갈 수 있게 하였다.

아. 양자를 해도 친부모와 단절 안돼 현행법은 양자를 가더라도 친부모 자녀관계는 유지되므로 친부모의 재산도 상속받을 수 있고 부양의무도 있다.

7. 호주승계

가. 호주는 누가 되나 호주의 아들, 딸, 처, 어머니, 며느리의 순이다.

본처 소생이 딸이고, 첩 소생이 아들인 때에는 나이에 상관없이 첩 소생 아들이 우선한다. 이와 같이 법이 1차적인 호주승계권을 남자에게 주고, 여자에게는 2차적으로만 호주승계권을

인정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평등권에 위배되는 것이다. 이러한 규정이 있음으로써 아들이 딸보다 더 중요하다는 남아선호사상을 조장하게 되고, 성비불균형 등 사회문제가 심각하다. 또한 나이 어린 아들이 할머니, 어머니 등과 같은 어른들을 제치고 호주에 오름으로써 가족 질서에도 맞지 않는다.

따라서 호주제는 마땅히 폐지하여 가족법상 완전한 남녀·부부 평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8. 재산상속

가. 재산상속은 누가 받나 사망한 사람의 아들·딸과 배우자, 부모·조부모, 형제·자매, 4촌이내의 방계혈족 순으로 상속받게 된다.

위와 같은 상속인이 없을 때는 사망자와 최후까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사람(예를 들면 사실혼의 배우자)이나, 그를 요양·간호한 사람, 그밖에 특별한 연고가 있던 사람도 재산을 상속할 수 있다.

나. 재산상속의 비율은

호주상속을 하는 맏아들이나 시집간 딸이나 차별이 없이 아들·딸은 모두 똑같은 몫을 받는다. 다만 사망자의 배우자인 남편이나 아내는 자녀 각자의 몫

보다 50%를 더 받게 하였다.

다. 자녀없이 죽은 딸의 재산은 전에는 아들이 자녀없이 죽으면 부모는 며느리와 공동으로 아들의 재산을 상속받지만 딸이 자녀없이 죽었을 때 친정부모는 상속을 받지 못하고 사위가 딸의 전 재산을 상속받게 되어 있었다. 1991년 개정법에서는 이를 고쳐 자녀없이 죽은 딸의 재산을 친정부모도 사위와 공동으로 상속받게 하였다. 이때 며느리나 사위는 시부모나 장인·장모보다 50%를 더 받을 수 있다.

라. 재산 축적에 특별히 공이 있는 사람에 대한 대우 공동 상속인 중에서 사망자의 재산을 유지하거나 증가시키는 데 특별히 기여한 사람은 자기 고유의 상속몫에 그 공로에 몫만큼을 더 받을 수 있다. 이때 그 몫에 대해 상속인끼리 협의가 안되면 법원에서 특별기여의 시기와 방법 또는 기여의 정도 그리고 그밖에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기여분을 정해주도록 되어 있다.

9. 유언 및 유류분

가. 유언의 방식은 만17세 이상이면 누구나 자유롭게 유언을 할 수 있다. 그 방식은 법률이 정한대로 해야만

법적효력이 있다.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의 5가지이다.

나. 유언할 수 있는 내용은 재산의 증여, 재단법인의 설립, 인지, 친생부인의 소, 후견인 지정, 상속재산 분할방법의 지정 또는 위탁, 상속재산분할 금지, 유언집행자의 지정 또는 위탁, 신탁 등에 한한다.

다. 유언한 후 철회할 수 있으나 유언은 유언자가 사망한 후에 효력이 발생하므로 본인이 살아 있는 한 언제라도 유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할 수 있고, 내용이 다른 유언을 새로이 하면 먼저 한 유언은 효력이 없어진다.

라. 전 재산을 제3자에게 주고 유언을 할 경우 1979년부터 시행된 개정가족법에 유류분제도를 신설하였다. 이제도는 유언으로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는 일정한 몫을 가족을 위하여 남기게 한 것으로 자녀와 배우자는 법정 상속몫의 2분의 1,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반환받을 수 있다. 따라서 아내와 자녀 등 법정상속인은 제3자에게 법정 상속몫의 2분의 1을 반환청구할 수 있다.

마. 유류분의 반환시기는 유류분 반환 청구는 유언자가 사망한 사실과 제3자에게 유언으로 재산을 준 것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할 수 있다. 그러나 사망한 지 10년이 넘으면 반환받을 수 없다.

생활정보

생활정보